

<2021년 1월 17일 주일 잠언>

하나님의 때와 기간

본 문 전도서 3장 1~8절

마가복음 13장 33절

1.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만물과 사람의 때와 기간’을 절실하게 겪고 깨닫고 기록하게 하셨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라고 했다. 사사건건마다 ‘때’가 있고, ‘기간’이 있다는 말이다.
2. <만물>도 <사람>도 ‘때’와 ‘기간’이 있다. 계절의 비유를 들어 말하면 ‘겨울이 오는 때’가 있고, ‘겨울의 기간’이 있다. 사람도 ‘태어나는 때’가 있고, ‘태어나서 사는 기간’이 있다.
3.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때>가 있고, ‘그 계절의 기간’이 있듯이, 사람도 <자기 때>가 있고, ‘자기 때의 기간’이 있다. 저마다 지난날을 살아오면서 겪은 사연들을 보면, ‘고생하는 때’가 있었고, 고생하는 기간이 지나가면 다시 ‘잘 되는 때’가 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뤘다.
4. 만사에 <때>가 있고, ‘그때의 기간’이 있다. ‘할 수 있는 기

회의 기간’이다. 그때 못하면 영원히 못 하게 되기도 하고, 혹은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어렵게 하게 되기도 한다.

5. 자기 때가 있듯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에도 ‘기간’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기간’이다. 이때 못하면, 아무리 하고자 해도 여건이 안 돼서 못하게 된다.

6.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의 때>는 정해져 있다. 그 기간이 지나가면, ‘기회’를 놓치고 못 하게 된다. 하나님은 누가 못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해 다시 때를 만들지 않으신다. 그때 못 했으면, 못 한 것으로 끝나게 된다. 그러므로 ‘때’와 ‘기회’를 잡아야 된다.

7. <때를 지키는 자>가 성공하고 자기가 원하던 꿈을 이루게 된다.

8. 하나님의 구원역사에도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는 때>가 있고, ‘메시아가 활동하는 기간’, 즉 ‘구원의 기간’이 있다. 그 때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지 못하면 못 한 것으로 끝난다. 신약 때도 ‘예수님이 살아서 복음을 전하시던 3년 반의 기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지 못한 자들은 그대로 끝나고 말았고, 후대에 복음을 들었어도 메시아를 못 보고 믿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이 시대 구원자를 보내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기간’이 있다. 그 기회의 기간에 ‘하나님이 시대 구원자를 통해 전하시는 말씀’을 못 들었든지, 듣고도 믿지 않고 만 자들은 그

대로 끝나고 만다.

9. 살아가면서 게을러서든지, 몰라서든지, 준비를 안 해서든지,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든지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신 때와 기회>를 놓치면 그대로 끝나고 만다.

10. 집을 사는 것도, 땅을 사는 것도, 교회를 사는 것도, 돌과 소나무를 사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관리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돈을 벌고 쓰는 것도, 이야기를 해 주는 것도, 말씀을 쓰고 전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병을 고치고 수술하는 것도, 각종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도, 키가 크는 것도, 상대방에게 대접하는 것도 - 모두 만사에 <때>가 있고, ‘그때의 기간’ 이 있다. 그때 꼭 해야 된다.

11.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으니, 그때 못하면 실패하고 후회하게 된다. 그러므로 <때>를 위해 준비했다가, 때가 오면 좋아서 전심을 다해 계획하고, 행해야 된다.

12. <때>가 지나면, 여건이 바뀌어서 ‘자료’ 가 없어진다. 예를 들면, 장마철에만 ‘흐르는 물’ 이 있고, 그때가 지나면 물이 말라서 없다.

13. 제때 하면, 모든 자료와 환경이 준비되어 ‘할 수 있는 여건’ 이 된다. 행여 여건이 안 좋아도 제때 행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도울 사람’ 을 보내 주시고, ‘성령의 감동’ 도 주시고,

자기에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강하게 주신다.

14. <봄>이 오면, ‘봄의 환경’도 같이 오듯이, <때>가 오면 ‘때의 환경’도 같이 와서 진행된다. 그때 하면, 하나님과 성령님도 함께하시고, 천사도 돕고, 사탄도 물러가게 되고, 인(人)사탄도 악평자도 자기 때가 아니라서 주권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제때, 꼭 해야 된다.
15. <때>가 왔으면, 딴 데 시간을 쓰지 말고 ‘때에 속한 일’에 집중해야 된다. 먹고, 입고, 자는 것도 중심하지 말고, 오직 ‘그 일’에만 집중해서 기어이 하고 말아야 된다.
16. 특히, 환난 때 사탄과 인(人)사탄과 악평자들이 반대하고 불신해서 힘들어도, <때>가 왔으면 행해야 된다. 때를 놓치면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된다.
17. <때>는 우연같이 홀연히 온다.
18. <때>는 저마다 준비된 대로, 또 성장된 대로 온다. 자기가 성장된 대로 ‘결혼의 때’가 오듯이, 신앙도 지식도 육도 영도 성장돼야 ‘자기 때’가 온다.
19. 어서 영육이 커야 <때>가 와도 맞게 된다.
20. 성경 역사의 때를 보면, 구약의 때는 ‘4000년’이었고, 신약의 때는 ‘2000년’이었고, 성약의 때는 ‘1000년’이다.

<구약·신약·성약 역사>는 ‘총 7000년’ 인데, 신구약 역사가 ‘6000년’ 이니, 성약역사는 ‘1000년’ 임을 알 수 있다.

21. <4000년 구약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는 때’가 왔을 때, 기다리던 유대종교인들은 육적으로 생각하여 메시아를 맞지 못했다. <2000년 신약역사>가 끝나면 ‘성약 천 년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은 ‘그 시대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구원 역사를 행하신다. <육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자기 주관과 자기 지식과 자기 수준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생각>으로 생각해야, ‘하나님의 때’도 ‘주’도 알고 맞게 된다.
22. <때>를 한번 놓치면, 평생 안 오기도 하고, 행여 오더라도 1년, 3년, 7년, 21년, 40년, 70년 만에 온다. 그러면 때가 왔어도 그만큼 인생이 늙었기 때문에 복을 받을 시간이 적다.
23. <때를 놓친 자>는 <때를 지킨 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펴지 못한다. 때를 지킨 자는 얻고, 때를 못 지킨 자는 다시 오는 때를 기다렸다가 얻어야 되기 때문이다.
24.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지난날 수많은 때를 잡고 행해 오셨기 때문에, ‘얻을 것’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오셨다. 우리도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시는 수많은 때를 지킴으로 ‘물질’도 ‘생명’도 얻었고, 또 관리했기 때문에 ‘현재 섭리역사’를 이루고서 살아가고 있다.

25. 올해는 <새롭게 하는 때, 이상세계를 이루는 때>다. 일 년 동안 매일 새롭게 함으로 매일 이상세계를 이뤄야 된다.
26. 올해는 <기회를 얻고 행하는 때>다. 때가 왔으니, 올해 모두 얻을 것을 얻어야 된다. - 이 말을 잊으면, 때를 놓치고 못 하게 된다.
27. 올해는 매일 마음과 행실을 새롭게 함으로, 매일 창조 목적 휴거의 역사를 펴는 ‘승리의 대(大)역사의 해’다. 올해 주제대로 영육 새롭게 하여 이상세계를 극적으로 이루는 해다.
28. <때>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때를 잘 잡고 일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29.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다. ‘그때 받을 것’은 꼭 그때 받아야 된다.
30. 때마다 <기회>가 오면, ‘그에 속한 문제들’도 같이 온다. 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심으로 생각하면, 성령님은 단상의 말씀으로 깨닫고 속히 행하게 하여 얻게 하신다. 후에 보면, 하루만 늦었어도 못 하게 될 일들이 많았다.
31. 무지하여 <때>를 놓치면, 정말 뼈가 저리는 후회를 하게 된다.
32. <때>가 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총동원해서 해야 된다.

33. <자기가 기다렸던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아도, 그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실천하는 것은 여건과 환경적으로 정말 어렵다. 그러므로 선생은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세상도 가정도 반대하는 자들도 쳐다보지 않고 뛰고 달렸다.

34. <기다리는 때>는 모두에게 온다. 준비했다가, 때를 잡아 지켜야 된다. 저마다 <자기 때>가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

◎ 때를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여
새롭게 함으로 매일 이상세계를 이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